

# “미남 사제 대신 삼촌 사제입니다”

영화 '변신' 배우 배성우

공포영화서 구마사제 역  
스크린 첫 주연 맡아  
내 안의 매력  
캐릭터에 융화시키고 싶어



한때는 '다작요정'이라 했다. 2015년에는 '베테랑' '더 폰' '내부자들' 등 한해에 무려 8편 영화에 크고 작은 배역으로 출연했다. 그 스스로 '다작농'이라고 부른 시기다. 분량과 관계없이 개성 강한 연기로 충무로 최고 신스타일로 꼽히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영화 엔딩크레디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영화 '변신'으로 첫 주연을 맡은 배성우(47) 이야기다.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배성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량이 적다 보니 한해 찍을 수 있는 작품 편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두 편을 한꺼번에 찍으면 육박하는 위치가 됐다"며 웃었다.

스크린 컴백은 지난해 추석 개봉한 '안시성'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변신' (김홍선 감독)은 강구(성동일)네 가족에 악령이 깃들면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 빙의를 다룬 기존 엑소시즘 영화와 달리 악마가 사람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한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배성우는 강구 동생이자 삼남매의 삼촌인 구마사제 중수 역을 맡았다.

그간 여러 작품에서 능글능글하면서도 인간미와 유머가 넘치거나, 독자같은 반전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웃음을 짝 빼다. 악령이 깃든 소녀를 구하지 못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인간적 고뇌를 안고 살아가다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구마의식을 실행한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꽃미남 배우들이 연기한 구마 사제와도 다소 결이 다르다. 그는 "최근에 청순한 사제가 많이 나왔지만, 제 배역은 사제 이름을 빌린 삼촌 역할"이라며 "캐릭터의 고민이나 정서에 맞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배성우는 사실 공포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다고 했다. 30대 때 영화 '엑소시스트 감독판'을 보고 크게 후유증을 앓고 난 뒤부터다.

"만든 지 수십 년 된 작품인데, 정말 무서웠죠.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도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자야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 '내가 왜 돈을 써가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막상 공포영화에 캐스팅되자 달라졌다. 직업정신부터 살아났다. "대본을 보면서 이 대목은 좀 더 끔찍하고 무섭게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하."

배성우는 악령을 쫓는 구마 사제를 연기하면서 난생처음 라틴어도 배웠다. 암기에 자신 있다는 그는 "라틴어는 그럭저럭 외울 만했는데, 후반부에 라틴어 기도문을 거꾸로 하는 대사는 한 글자씩 따로 떼어서 외워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떠올렸다. 성동일·김영남 등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실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게 현장을 지킬 때도, 그 혼자만 촬영장 한 구석에서 대사를 외워야 했을 정도다.

배성우는 '변신'에서 사제와 악마를 오가며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그는 "악마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재밌었다"면서 "그런 임팩트 있는 연기가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 재밌게 놀자는 심정으로 연기했다"고 떠올렸다.

배성우는 마지막 엔딩신에서 강력한 모습을 선보인다. "연기하면서 멋 부리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게 되고, 슬프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실패가 되죠. 배우의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매력은 떨어집니다. 관객이 머리가 아니라 정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죠. 마지막 장면 역시 흑시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면서 가장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라며 "대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는 대사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20대 후반에 연극배우로 출발해 40대 중반부터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주연 배우로 자리 잡은 배성우에게 연기는 "일이자 취미"다. 현재는 영화 '출장수사'를 촬영 중이며,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개봉도 앞두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하죠. 앞으로도 작품마다 세련된 차별성을 두고 싶습니다. 배우는 대본 안의 캐릭터와 개인적인 매력,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 안의 매력을 캐릭터에 잘 융화시키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 정전회담 당시 그대로 보존된 DMZ 회의장 JTBC 창사기획 'DMZ' 프롤로그 오늘 방송

남과 북 DMZ 영상에 담아

JTBC는 창사기획 UHD(초고화질) 다큐멘터리 'DMZ'의 프롤로그 편을 광복절인 15일 밤 9시 30분에 방송한다고 14일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최초로 남과 북, 각각의 비무장지대(DMZ)를 영상에 담았다. 그동안 방송 촬영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 DMZ에만 국한됐지만, 북한에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구간에 DMZ가 존재한다.

제작진은 북한 DMZ인 판문점 내 판문각을 촬영해 남과 북의 시선으로 DMZ의미를 새롭게 조망했다.

제작진이 찾아가 북한 판문점 기념품점에서는 '판문점' 글씨가 쓰인 티셔츠와 모자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문각도 삼엄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많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기는 모습이 었다.

DMZ를 탄생시킨 정전협정이 논의됐던 역사적인 장소인 '정전협정 회의장'도 영상에 담았다. 역시 북한 DMZ 내에 있었다.



정전협정 회의장

놀랍게도 정전협정 회의장 내의 모든 책상과 의자는 1951년에서 53년까지 정전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제작진은 "남과 북의 시선에서 DMZ를 모두 살펴보는 방송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시도"라며 "긴장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DMZ 의미를 다시 한번 묻고자 했다"고 전했다.

프롤로그에서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DMZ에서 많은 교전이 있었음을 미국에서 입수한 새로운 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내레이션은 배우 이재훈이 맡았다.

/연합뉴스

## 송은이, 영화예능 제작 ... 김숙과 '영화보장'

스카이드라마 23일 첫방송

'판 벌이는 언니' 송은이가 이번에는 영화예능 프로그램을 만든다. 스카이드라마와 채널A는 새 프로그램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을 오는 23일 밤 9시 40분 선보인다고 14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 속 스텔이지만 재미있는 은근한 TMI(Too Much Information, 자잘한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쇼. 영화감독 장항준, 예능인 황제성, 박지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선도 출연해 매회 새로운 영화 속 정보들을 이야기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파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광복절 특집 양곡르 MBC스페셜 아베와 일본회의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1~2부	30 930 MBC 뉴스 55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0 광복절 특집 좋은아침
10	00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00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1	20 광복절 특집 우리 들꽃의 독립	10 저스티스 몰아보기 1~3부	25 편애중계 1~2부 스페셜	20 광복절 특선영화 암살
12	00 KBS 뉴스 20 특집 다큐 DMZ 몰다		45 MBC 뉴스 55 놀면 뭐하니? 1~2부 스페셜	50 SBS 뉴스
1	00 나의 독립 영웅(재) 05 사랑의 가족 55 꼬마야사 콩도령 2	25 광복절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같이 편딩 미리보기 30 광복절 특집 기억, 100년을 탐험하다	00 리틀 포레스트 스페셜 1~2부
3	00 TV쇼 진품명품 스페셜(재)	15 개그 콘서트(재)	25 광복절 특집 PD수첩	40 정글의 법칙(재)
4	05 특집 도전 골든벨	3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40 의사 요한 1~2부(재)
5	00 KBS 뉴스 10 미니디큐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주특별기획 남도스페셜	55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 별 해는 밤 1~2부	35 같이 편딩 미리보기 50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50 특선 그것이 알고 싶다 - 조수빈의 후예들 왜 안중근을 죽이는가?
6	00 6시 내고향			
7	00 KBS 뉴스7 40 광복절 기획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광복절특집 kbc양곡르다큐 육매산, 그 아픔을 넘어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광복절 기획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광복절 특선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1~2부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20 나이트라인 50 광복절 특집 UHD 다큐멘터리 연해주에 남겨진 별들 2부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9:00 레이디버그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광복절 특선 영화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카이강의 다리>	20:40 세계테마기행
07:15 띠띠뽀 띠띠뽀	15:00 광복절 특집 다큐	<중부 유럽 시골 유랑기 4부 검은 숲의 사람들, 독일>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임정의 큰 어른, 이동녕>	
07:45 페퍼 피그	16:00 예술가 놀자	21:30 한국기행
08:00 땡땡 땡땡 1~2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아마당에서 여름휴가2 4부 친애하는 올여름>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6:30 땡땡 땡땡 1~2(재)	21:50 다큐 시선
08:45 라떼키즈	17:00 EBS 뉴스	<우리는 산재 피해 가족 '다시'입니다>
09:00 마사와 곰	17:20 다큐동화 달팽이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30 물랑	17:30 페퍼 피그(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7:45 마사와 곰(재)	<헬로루키 스페셜 -뜨거웠던 너를 기억해>
10:30 한국기행(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1~5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5일(음 7월 15일 甲申)

<p>36년생 변동의 폭이 매우 넓다. 48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느니라. 60년생 강력한 길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국면이다. 72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84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6, 20</p>	<p>42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54년생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66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78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90년생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71, 27</p>
<p>37년생 머지않아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49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61년생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73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85년생 이미 가다가 잡히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4, 61</p>	<p>43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55년생 운로가 길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67년생 신선함은 있지만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하다. 79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91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19, 35</p>
<p>38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50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참체하게 된다. 62년생 부주의의 한다면 타격의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74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86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80</p>	<p>44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56년생 판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68년생 속고해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다. 80년생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정답이다. 92년생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들어가자. 행운의 숫자 : 03, 17</p>
<p>39년생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얽매어 애틀 쓰게 된다. 51년생 신중 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63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75년생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87년생 바쁘더라도 항상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10, 86</p>	<p>45년생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다. 57년생 기본에 충실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69년생 재물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81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93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행운의 숫자 : 06, 77</p>
<p>40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 52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64년생 실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76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라리라. 88년생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0, 10</p>	<p>34년생 일시적인 정황일 뿐이니 껄념할 필요는 없다. 46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58년생 바로 말하지 말고 빙 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70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82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7, 29</p>
<p>41년생 본격적인 절치를 밝게 된다. 53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화하고 말 것이다. 65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77년생 치밀한 계획 하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처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89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31, 01</p>	<p>35년생 빨리 조치할수록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7년생 발상과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59년생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71년생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83년생 말이나 실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7, 8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